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3개 마을이 합해져 정명2리(正明二里)로 되었다.

1) 뱀골(蛇谷)

마을이 뱀 같이 길게 형성(形成)되어있다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2) 섭실(薪谷)

약 300년 전에 순흥 안씨(順興安氏)가 작은 계곡(溪谷)을 개척할 때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섭실(薪谷)이라 한다.

3) 어티(於峴)

약 500년 전에 김녕 김씨(金寧金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으므로 고개 가운데에 마을이 생겼다 하여 어티(於峴)라 한다.

3. 가구 분포

총 39세대가 거주하며 김녕 김씨(金寧金氏), 안성 이씨(安城李氏), 순흥 안씨(順興安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찬물밭

마을을 개척할 때 찬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하고 찬물밭이라 하였다. 이 샘은 피부병과 위장병에 좋다 하여 지금도 여름이면 인근 마을에서 찾아온다.

제15절 척산리(尺山里 : 1·2·3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기성리(箕城里)와 동해(東海)가 있고, 서쪽은 정명천(正明川) 상류가 흐르고 있으며, 남쪽은 탕건봉(宕巾峯)으로 둘러싸이고, 북쪽은 사동리(沙銅里)와 인접하고 있다. 뒷산은 금장산(金藏山) 지맥(支脈)이 동쪽으로 뻗어 망질봉(望侄峯)이 되었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건립되었으며 현재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7년에 기성면보건지소가 개소하였다.

2. 마을의 역사

1) 척산1리[尺山一里; 속명 자산]

1172년(명종 2)에 기성현(箕城縣)이 생기면서 현(縣) 소재지였으나 평해군(平海郡)에 편입(編入)되면서 없어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척산리(尺山里)는 자산(尺山), 용당골, 장터, 지산, 샛터, 용골인 6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었는데 척산리가 분구(分區)되어 척산1리, 척산2리, 척산3리가 되었고, 자산(尺山)과 용당골이 척산1리가 되었다. 그리고 마을 뒤의 산세(山勢)가 척(尺)자와 비슷하다 하여 척산(尺山)이라 하였다. 오래전부터 안성 이씨(安城李氏)가 살다가 떠나고 400여 년 전부터 순흥 안씨(順興安氏)가 들어와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다. 용당골(龍塘谷)은 마을 앞의 큰 못에 용(龍)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척산2리(尺山二里)

1923년에 동해안(東海岸)에 국도(國道)가 개설되면서 생긴 마을로 정명1리에 있던 면소재지(面所在地)가 이곳으로 옮겨왔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척산리에서 척산2리가 분구(分區)되었고 자연부락으로 장터와 지산이 있다. 지산(芝山)이란 마을 이름은 조선시대에 떼밭을 개척하여 이룬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3) 척산3리(尺山三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척산리에서 분구(分區)되었고, 자연부락으로는 샛터(新址)와 용골(龍谷)이 있다. 이 마을에는 약 500년 전에 곽씨(郭氏)가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다가 떠났고, 1750년에 황석하(黃錫夏) 선비가 들어와 새 터전을 이룩하였다 하여 샛터(新址)라 부르고 있으며, 용골동(龍谷洞)은 마을 앞에 있는 못(沼)에 용(龍)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가구 분포

총 24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척산1리에는 33세대가, 척산2리에는 137세대가, 척산3리에는 75세대가 분포하고 있다. 척산1리는 순흥 안씨(順興安氏)가 집성촌을 이루며, 척산2리는 순흥 안씨(順興安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안동 김씨(安東金氏), 강릉 최씨(江陵崔氏), 평해 손씨(平海孫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척산3리는 영양 남씨(英陽南氏), 경주 이씨(慶州李

氏), 창녕 조씨(昌寧曹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신당(洞神堂)

약 500년 전에 건립(建立)된 셋터(新址)마을의 동신당(洞神堂)으로 1985년에 개축(改築)하였으며 당내(堂內)에 있는 팽나무는 수령 500여년으로 군보호수(郡保護樹)로 지정(指定)되어있다. 그리하여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고 액운을 막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2) 망질봉(望倭峯)

여말(麗末) 기성현(箕城縣)이었을 당시 현령(縣令)이 장질(長姪)을 서울로 과거(科擧) 보러 보낸 후 산에 올라가서 매일 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비선동(碑善洞)

조선 현종(顯宗) 때 이 등(嶝)을 통하여 경향(京鄕) 각지로 왕래하는 대로(大路)가 있었는데 길옆에 지방 관료들의 선정비(善政碑)가 세워져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은 정명리 어현국도(於峴國道) 변으로 이설(移設)되었다.

4) 서창(西倉)밭

고려 말 기성현(箕城縣) 소재지(所在地)였을 당시 군량미(軍糧米) 비축창고(備蓄倉庫)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 양진당(養眞堂)

처사(處士) 안희택(安希宅)이 강학(講學)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6) 화수정(花樹亭)

순흥 안씨(順興安氏) 문중(門中)에서 건립(建立)한 집회소(集會所)다.